

# 가을 길목 흥겨운 '국악의 숲'에 빠져보자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이 가을을 맞아 다양한 이색 공연을 선사한다. 사진은 최근 이곳에서 열린 흥겨운 춤 공연 모습. <국립민속국악원 제공>

## 남원 국립국악원, 전국 3개 국악원과 통합교류축제

### 내달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4개 작품 공연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정상열)에서 흥겨운 우리 가락을 즐길 수 있는 이색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국악원은 28일 "통합교류축제 '국악의 숲' 공연을 오는 9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서울을 비롯하여 남원, 진도,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있는 전국 4개 국악원이 그 지역의 특성화 사업에 기반하여 제작한 대표 브랜드 작품이다. 지난 4월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개최 이후 두 번째로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열린다. 오는 9월 4일 통합교류축제의 첫 무대를 장식할 작품은 국립국악원의 '한국춤의 향연(饗宴)'이다. 궁중정재를 비롯 다채로운 민속춤과 창작춤에 이르기까지 우리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작품이다. 또 오는 9월 11일 두 번째 무대는 국립민속국악원의 '판에 박은 소리 - Victor준

향'이다. 창극과 판소리 특성화 기관인 국립민속국악원이 지난해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개관기념으로 선보이며 큰 이슈를 낳았던 작품으로 남원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소리극이다. 또 9월 18일 세 번째 무대는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브랜드 산자를 위한 진혼곡 '씻김굿'이다. 씻김굿과 다시태가를 소개하면서 죽음에 대한 의례를 예술로 승화시켜 무대화 한 작품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 전남 소식

### 해남 올 가을·겨울배추 재배면적 줄어

전국 최대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해남 배추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28일 "배추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한 의향조사 결과 가을배추는 지난해보다 4% 감소한 1485ha, 겨울배추는 7.1% 줄어든 2640ha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배추 재배면적이 2842ha까지 늘면서 가격이 폭락, 산지폐기 등이 이뤄졌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전남복지재단, 복지시설 직원 '쉼 프로그램'

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28일부터 2일간 여수 유개솔호텔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쉼(休)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전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네트워크 증진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휴와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 충전'을 주제로 했다. 참석자는 도내 사회복지직능단체에서 추천받았다. 재단은 세부 프로그램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참여형 강의, 사회극, 베이커리 만들기 체험 등을 마련했으며, 추후에는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보성군 우산지구 택지 7796㎡ 분양

보성군은 28일 "보성을 우산지구 350~618㎡ 규모 16가구 택지 총 7796㎡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택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의 상가와 다세대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다. 4차로 도로에 인접해 교통 여건이 좋으며, 남해고속도로·국도 2호·국도 29호 등 도로망도 구축돼 있어 인근 대도시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공급조건은 분양신청 시 예정금액의 5%를 예약금으로 내고 계약 시 5%, 3개월 이내 중도금 40%, 6개월 이내 잔금 50%를 내며, 추첨에 의해 공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분양 신청은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성군 지역개발과로 하여 하며 9월 15일 오후 2시에 추첨한다. 보성 우산지구는 지난해부터 총 4개 블록 1만5074㎡ 부지를 주택단지 7796㎡, 도로 3368㎡ 공공용지 3910㎡로 개발되고 있다. 보성군은 이곳을 공익사업으로 주거지가 철거된 이주민의 정착과 휴게 공간,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복기자 kyb@kwangju.co.kr

### 해남군 '명량역사체험마당' 한 달 연장

해남군 우수영에서 매주 열린 '명량역사체험마당'이 한 달 연장된다. 해남군은 28일 "6월부터 이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일요일 문내면 우수영관광지에서 운영하던 체험마당을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화 '명량' 흥행 덕분에 영화 배경이 됐던 우수영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6년째 운영 중인 이 체험마당은 그동안 이순신 어록쓰기, 장군복 입고 사진찍기, 대장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명량대첩 당시를 느끼고 알아가는 역사 교육장으로 많은 인기를 얻어왔다. 연장 운영 기간에 우수영강강술래 공연 3회(30일, 9월 6일·13일)와 체험마당 10회가 추가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전주국제영화제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 15주년 맞아 전문가 포럼 미래 비전 논의

전주국제영화제가 진화한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8일 "영화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29일 오후 2시 전주영화제작소 4층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전문가 포럼을 열고 영화제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이상용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포럼에는 영화 '위남소리'를 제작한 영화사 '인디플러그' 고영재 대표와 원도연 원광대학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또 황우연 튜브온 영화사 대표와 영화평론가 정지연, 2014 디지털 산인상 색 '산다'를 연출한 박정범 감독, 김영진 수석프로그래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부안 수산물 공동브랜드 '참신해' 활용 협약

### 郡-부안수협 판매 협력키로

부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특산물이 공동브랜드 '참신해'를 갖게 됐다. 부안군은 28일 "지난 2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부안군 수산특산물 공동브랜드 '참신해'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식(사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안수협은 부안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참신해' 브랜드를 활용하고, 부안군 어획 수산물의 구매 및 판매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부안군 수산물 브랜드 활성화 및 수산업 육성·진흥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군은 부안수협과의 상생 마케팅을 통해 부안군 수산물 브랜드의 가치 증대 및 수산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중규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안군 수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도 "부안군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소비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NAVER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4성급★ **호텔건물매매**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연락처 010-9823-7781, 010-9896-8701**

**축양장 부지 적합** **소액 투자** **최고의 전원주택지**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항석 011-642-7777**

**수익 33.3% 호텔 "급매매"**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010-5188-5515**

**급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매매가격 8억8천만원** **010-3215-9969**